

朝鮮日報
大正八年九月八日

朝鮮日報

朝鮮日報
内幕

朝鮮日報

320.051

ス 425 ス



머리말



日帝 식민통치 기간과 맞먹는 광복 35년을 넘겼으면서도 아직도 산만한 의식을 털어버리지 못한 채 어정쩡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 아닐까. 민족의 분단, 전국토를 焦土化한 6·25 동란, 人類史의 보편 이념으로 이식된 民主政體와의 시련·갈등·拮抗(질항)을 빚은 4·19 혁명, 5·16 군사혁명, 10·26 사태 등 극적인 사건들을 중첩적으로 겪었을 때, 사실상 어느 민족인을 悠悠自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수록 우리는 적동과 충격의 連續史를 오히려 인간의 의식을 넓혀 주고 깊게 하는 「記錄의 寶庫」로 다듬어 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겪은 사실들을 차분히 페어 맞추고 가치를 부여한다면 우리의 민족사는 더욱 중요하게 살찌워질 것이며, 보다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삶의 습성을 키울 수 있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소신이다. 이런 시각에서 朝鮮日報는 역사의 변혁기의 주역과 중인들에게 당시의 신변잡기나 사실의 나열이 아닌, 史記를 쓰도록 위촉, 「轉換期의 內幕」을 중언하고 평가하는 연재를 마련하여 「기독하는 민족만이 살아 남는다」는 篆言을 실현해 보려고 한다.

「轉換期의 內幕」 제 1회를 게재하며 1981년 1월 5일자 朝鮮日報는 위와 같은 편집자 注를 내보냈다.

36년간의 日帝 침략기간은 말할 것도 없고 8·15 광복 후의 그와 맞먹는 세월에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적 시련은 또한 혹독한 것이었다. 그것은 日帝 침략이 近因으로서 작용한 바가 큰 민족적 고난이며 역사적인 부담이었지만, 그 혹독한 부담을 우리 나름대로 극복하는 슬기로움이 충분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요소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광복 이후 우리 민족이 겪은 國土分斷, 左右翼의 대립, 北僕 기습남침에 의한 6·25의 동족상잔 등은 새 국가를 세우고 가꾸어 나가는 마당의 우리 민족으로서는 매우 힘겨운 역사적 부담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분단된 상태에서나마 그런 힘겨운 역사적 부담들을 어떻게든 우리나라로 극복해 왔다.

朝鮮日報가 「日帝 식민통치기간과 맞먹는 광복 35년」을 넘기면서 「轉換期의 内幕」의 연재를 기획한 데에는 그와 같은 「역사적 부담의 내막」을 주제으로서 그 현장의 중심부에 있거나 또는 거기 가까이 있었던 중인들의 기록과 증언을 통해서 함께 겪듯이 살펴보며 현재 또는 미래를 향한 역사적 창조의 계기로서 되새겨 보려는 意志가 담겨 있었다. 「轉換期의 内幕」은 朝鮮日報 1981년 1월 5일자로 시작되어 12월 29일자까지 거의 날마다 연재되어 2백 44회로 끝나면서 애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며 뜨거운 성원을 받았다. 그동안 광복후 30여년간에 있었던 30개의 역사적 사건들, 곧 轉換期의 内幕이 30명(3명은 2개 주제를 집필)의 필

진에 의해 기록되었다. 그것을 쓴 필자들이 모두 그때 그 현장을 살아서 체험한 현실을 생생히 썼다는 데에서 이 「내막」이 주는 현실감은 특유하며 차별한 것이다.

朝鮮日報社가 이를 다시 한권의 책으로 묶어 팔아는 뜻도 轉換期의 이 차별한 기록들을 역사적인 창조의 계기를 위한 증언으로 각다듬음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

「기록하는 민족만이 살아 남는다」는 잠언과 더불어 가치 있는 기록을 되새기며 확인하는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뜻이 여기에 담겨지는 것이다.

1982년 1월

朝鮮日報社

論說主幹 趙德松

北傀포로수용소

李基奉

국제문제연구소 수석정책연구원
당시 開軍제 2 군단 정보처要員·포로생활



자유의 다리를 건너오는 만공포로 제 1 선

정확한 名單 기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전쟁에서나 포로는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전쟁(세계 제1차대전 前까지만 해도)에서는 이 포로는 정복자 쪽에서 죽이든 살리든 입의로 처분하는 인권부재의 한낱 권리품과 같은 존재였다.

1900년대에 들어와 이런 비인도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가 비로소 포로에 관한 국제적인 조약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1907년 10월 18일 베일란드의 헤이그에서 조인된 「陸戰의 法規慣例에 관한 규칙」과 1929년 7월 27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조인된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에 관한 조약」(1949년 8월 12일 改正)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후자의 조약을 통칭 「제네바협정」이라고 부른다.

이 두 조약은 꼭 같이 전쟁포로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전쟁에서 북괴와 중공은 이런 국제협정을 전면 무시해 버렸다. 북괴는 남침직후에는 세계의 이목을 의식했던지 자진해서 『『제네바협정』 참가 조인국은 아니지만 동협정의 정신과 조항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하고 50년 7월 5일 오산전투에서 생포된 유엔군(한국전장에 맨처음 달려온 미군 제24사단 제21연대 소속 스미드機動部隊) 포로 1백 10명의 명단을 국제 적십자사에 보고했다.

포로에 관한 북괴의 보고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북괴는 두번 다시 국제적십자사에 포로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엔군측은 전쟁 전기간 동안 공산군 포로 명단을 한명도 빼놓지 않고 수시로 국제적십자사에 보고했다. 마지막 휴전이 성립된 1953년 7월 27일까지 국제적십자사에서 파악하고 있던 유엔군 포로 명단은 1백 10명(전부 미군)뿐이었고 공산군 포로는 13만 2천 4백 74명(북괴군 11만 1천 7백 54명, 중공군 2만 7백 20명)이었다.

유엔군측의 이 보고 숫자는 북괴군에게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거나 피난민으로 방황하다가 포로로 잘못 취급된 남북한 출신 비전투원(민간인) 3만 7천명을 분류-제외시킨 숫자였다.

휴전회담의 양측 포로 명단 교환시에 유엔군측은 국제적십자사에 보고한 것과 꼭같은 13만 2천 4백 74명분을 내놓았다.

공산군측에서는 유엔군 포로 4천 4백 17명(이 가운데 미군 3천 1백 98명)과 한국군 포로 7천 1백 42명, 합계 1만 1천 5백 59명분의 명단을 내놓았다.

13만명 대 1만 1천명의 교환, 이 얼마나 불합리한 짓인가! 왜 이토록 유엔군과 공산군간에 포로의 수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공산군은 한국전쟁 전기간에 걸쳐 정말 유엔군(한국군 포함)을 1만 1천 5백여명밖에 포로하지 못했던 것인가? 그들은 戰果발표에서는 1951년 12월 30일 현재 한국인 6만 5천여명과 미군 1만여 명을 포로했다고 떠들어댔었다.

한편, 유엔군측에서는 전쟁 중 한국군의 행방불명을 8만 8천명, 미군 행방불명 1만 1천 5백명으로 산정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엔군측 행방불명자 합계는 10만 가까웠다. 행방불명자가 전부 공산군의 포로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산군측의 전파(포로) 발표숫자와 어지간히 맞아들여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공산군측은 정작 포로명단은 그들의 전파발표 숫자의 약 8분의 1, 유엔군측의 산정수의 약 9분의 1밖에 내놓지 않았다. 유엔군측은 이를 납득하지 않았다. 정확한 포로의 수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공산군측은 『미군 포로는 원래 체질이 약한 탓으로 많은 수가 병사를 했으며, 미공군의 무차별 폭격에서도 많은 수가 희생됐다. 그리고 국군 포로는 이미 전선에서 자유 석방해 버렸다』고 억지 일관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 포로교환문제(의제 제 4 항)는 휴전회담을 24개월 이상 끌게 만든 가장 큰 난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북괴와 중공은 도대체 왜 통틀어 1만 1천 5백여명의 포로 명단밖에 내놓지 않았던가? 그 이유는 북괴가 남침 직후, 국제적십자사에 1백 10명의 최초의 미군포로만을 보고하는데 일체 후속보고를 단절해 버린 해괴한 행위 속에 이미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生殺與奪權 휘둘러

북괴가 남침·직후 자진해서 「제네바협정」의 정신과 조항들을 준수하겠다고 성명하고서도 38도선과 서울 그리고 水原 사이에서 불잡힌 수많은 한국군 포로는 제처두고 50년 7월 5일 烏山 전투에서 불잡힌 미군포로 1백 10명만을 즉각 국제적십자본부에 보고한 행위의 이면에는 「他國(한반도)의 국내전쟁에 부당하게 미지상군이 개입했다」는 실증 자료를 조속히 국제사회에 알림과 동시에 「미국이 한국을 선동 지원하여 먼저 북침을 개시했다」는 증거를 조작해야 했고, 또 그들이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 육군을 초전에 격파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싶었던 의도가 내포되어 있

었던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오히려 그들 자신이 침략자로 낙인찍히고 규탄받게 되자 북괴는 국제적십자본부에 포로에 관한 보고를 일체 중단해 버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북괴는 처음부터 제네바협정을 준수할 의사가 추호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북괴의 보고 중단은 또 국제적십자 측의 포로문제에 대한 관여를 봉쇄해 버리려는 기도일 것으로도 풀이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북괴는 누구의 간섭도 감시도 받지 않고 포로를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포로의 임의처분이란 포로에 대한 生殺與奪權의 남용을 말한다. 사실 북괴는 남침직후인 50년 6월 25~30일, 38선과 漢水이북 사이에서 포로한 한국군을 현장에서 총살해 버리기도 하고 머려는 서대문 교도소 등에 감금했다가 북으로 끌어가기도 했다. 또 강제행진 도중에 부상자나 낙오자는 가차없이 살해하기도 했다. 특히 남침초기에 북괴에게는 포로취급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없었다.

이러한 북괴의 만행은 비단 남침 초기에만 한했던 것은 아니며 전쟁 전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것이다. 후일 중공군이 개입하여 그들의 포로 이용을 중시한 다분히 정치전략적인 방침에 따라 포로 직접 살해의 빈도가 약간 낮아지기는 했지만.

북괴군에 불잡힌 국군포로의 운명은 전적으로 북괴군 각 단위 부대 지휘자(소대장으로부터 사단장)들의 포로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여하히 행사하느냐에 따라 결정나는 것이었다.

이것은 꼭 국군포로들의 경우만이 아니었다. 북괴군에 생포된 미군을 포함한 모든 유엔군 포로들도 이와 꼭같은 대접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미군포로들은 국군포로들보다 더 혹

독한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다.

북괴군은 무저항의 포로를 복수 대상으로 간주하는 자세였다.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살육하는 것을 능사로 여겼다.

북괴의 남침초기, 平澤·天安·大田·永同·金泉·洛東江 전선에 이르는 산야의 곳곳에는 집단 학살당한 미군의 시체무더기가 널려 있었다. 북괴는 그들 후방으로 포로를 호송할 수송수단도 갖지 못했었고 포로를 수용할 만한 시설도 양곡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에게 수많은 유엔군 포로는 분명히 큰 성과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귀찮기 그지없는 존재였다.

부상포로는 더욱 그러했다. 의약품과 병원 시설부족으로 자기 배들 부상자도 제대로 치료를 못하는 판국인데 적군의 부상포로들을 치료해 줘야겠다는 자비심이 그들에게 있을 턱이 없는 것이다. 부상포로는 기적적인 신의 가호가 없는 한, 빼이면 빼 모두 죽음을 자오해야 했다.

한국전쟁의 휴전이 성립된 후 본국으로 돌아가 되역한 제3대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W. 클라크大將은 유엔총회에 나가서 공산군의 그와 같은 포로학대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실증자료를 모아 고발연설문을 작성한 바 있었다(국제적 정치문제로 해서 끝내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클라크장군의 그 고발연설문(1954년에 발행된 클라크장군의 회고록 「다뉴브江으로부터 암록강까지 <From the Danube To the Yalu>」에 수록된)에 의하면 한국전쟁 전기간(3년)에 공산군은 1만 1천 6백 22명의 유엔군 포로를 직접 살해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클라크장군은 그 연설원고의 하두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피살된 시체로서 지금은 공산군의 만행에 대하여 말없는 증인이 되고 있는 1만 1천 6백 22명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유엔군은 나의 이 보고의 토대가 되고 있는 배경을 조사하는데 있어 한 간으로서 가능한 한도까지 극히 면밀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취하여 왔습니다. 유엔군은 여러분에게 기록상의 모든 증거를 제공하여 드릴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클라크將軍의 증언

필자는 1950년 11월 26일 평북 德川지구 전투에서 林彪의 충공군 제4야전군 예하 제13集團軍 제38군 제114사단에 포로가 되어 당시 함께 포로가 된 수많은 聖友들과 함께 북으로 죽음의 행진을 강요당하여 암록강 근처의 和豐광산(亞鉛礦)의 坑穴(땅굴) 속에 수용된 바 있고, 영하 20~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국군포로를 인수한 북괴측의 학대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쓰러져간 무수한 인명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필자의 이런 체험담은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前回에서 얘기를 시작했던 클라크장군의 증언 소개를 계속하기로 한다. 다음은 클라크장군의 고별 연설문 속에 수록된 북괴군의 유엔군 포로 1만 1천 6백 22명 학살만행 事例 가운데 몇 가지 경우를 발췌한 것이다.

50년 8월 15일 새벽, 낙동강 전선의 僧館 근처 303고지에서 미 제5기갑연대 소속 1개소대 38명이 북괴군 제3사단에 소속해 있는 2개 중대의 기습공격을 받고 전부 포로가 되었다. 북괴군은 미군포로들의 구두를 벗기고 그들의 소지품을 모두 빼앗았다. 그런 다음 포로들의 손을 철선과 구두끈으로 묶어 등뒤로 결박했다.

포로 가운데 부상자 3명은 현장에서 총살해 버리고 나머지 포로들은 북쪽으로 강제 행진을 시켰다. 이를 날 8월 16일 오후 어느 계곡에 당도했을 때 갑자기 북괴군 호송병들은 손을 뒤로 묶인 포로들에게 집중사격을 가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자리 를 떠나 버렸다. 그들은 미군 1개 중대의 추격을 감지했던 것이다.

이 학살 만행에서 34명의 미군병사가 살해되고 4명만이 죽은 채 엎드려 있다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날 이 4명의 포로는 추격해 온 미군 탐색대에 의해서 구조되었으며, 그 수색대는 학살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했고, 또 이 범죄의 범행자 중 2명(북괴군)을 현장 근처에서 생포했다. 이 2명의 살인 범죄자는 그들의 소속이 북괴군 제3사단 9연대라는 것과 살인만행에 가담했던 사실을 자백했다.

50년 7월 18일 북괴군 제4사단 18연대 소속의 1개 소대는 대전 북방 금강 전투에서 부상, 낙오한 20명의 미군병사와 이들을 치료중인 군의관, 중군목사를 습격하여 총검으로 찌르거나 기관총을 난사하여 모두 살해해 버렸다.

북괴군은 적십자나 그밖의 어떤 信神의 상징도 존중하지 않았다. 그들은 분명히 적십자 완장을 하고 있던 비무장의 군의관과 중군목사까지 주저없이 학살했던 것이다.

유엔군의 노도와 같은 9·28북진이 계속되어 평양 함락이 결박 헤지자, 북괴는 그동안 평양 지역에 집결시켰던 미군포로들을 북방으로 이송하기 위해 기차에 태웠다.

북괴군은 다 해진 여름옷 차림의 포로들을 무개화차에 초만원으로 몰아 넣고 싸늘한 북녘의 10월 날씨에 내놓아 그대로 수송했다. 몸이 쇠약해진 포로들은 영양실조, 폐렴, 이질 등의 질병으

로 매일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들 전우들은 정차시간 중에 여유가 있으면 사망한 병사들을 철로연변에 묻어주고 간단한 장례식을 거행하고는 했다.

포로들은 9일간에 걸친 이와 같은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으며 수송된 곳에 평북 선천 서북방 약 4~5마일 지점에 있는 터널에 당도하여 하루종일 무개화차에 갑금된 채 터널 안에 머물렀다.

이튿날 10월 20일 오후 기아상태의 포로들은 수일만에 처음으로 먹을 것을 배급하겠다는 북괴군 책임자 張中佐의 약속을 받았다. 이후로 북괴군은 포로 가운데 미군 대령 한 명을 선두로 하여 20여명씩 몇차례에 걸쳐 터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근처 마을에 식사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리로 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진은 굶주린 포로들에게 바로 저승길이었다. 터널밖 개울가 언덕에 대기중이던 북괴군 경비병 1개소대는 포로 제1반이 개울에 들어서자 마자 『그 자리에 모두 앉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일제사격을 퍼부었다. 그 다음의 제2반, 제3반, 제4반도 그곳에서 같은 취급을 받았다.

어찌할 도리없는 포로들은 모두 땅에 앉아 있는 채로 또는 빈밥 그릇을 손에 들고 선 채로 살해당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3명은 죽은 채해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부지했지만 모두 중상을 입었다. 그 다음날 아침, 유엔군이 선천을 점령했을 때, 이들 68명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터널 안에서 7구의 시체가 더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영양실조로 죽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밤낮 둘볶는 洗腦

북괴는 남침 직후,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포로관리기구를 가지

고 있지 못했다. 그러다가 유엔군 포로가 자꾸 불어나자, 이른바 7인 군사위원회(위원장 金日成) 결정에 따라 50년 8월 중순에부터 인민군최고사령부 後方總局(총국장 金烈一-소련인 2세·모스크바대학졸업)에서 포로 관리를 맡게 되었다. 통칭 「인민군후방사령부」라고 했던 이 기구는 북괴 남침전쟁의 일체의 후방지원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따라서 포로 관리를 이곳에서 맡으면서부터 유엔군포로(특히 국군포로)들은 본격적(조직적)으로 갖가지 고되고 위험한 労役(파괴된 철도와 시설 복구, 비행장 건설, 유엔공군이 투하하여 땅속에 박힌 대형 시한폭탄과 불발탄의 발굴 제거작업 등)에 흑사되어 시작했다.

북한 포로수용소는 평안북도의 碧潼 楚山 零時 天摩山 外貴滿浦鎮 朔州 北鋼鑄山 和豐鑄山, 평안남도의 平壤 江東 順安, 황해도의 黃州 등 10여개 지역에 산재했다. 포로수용소라고 해서 따로 어떤 시설을 갖춘 것이 아니고 산기슭의 대형 방공호 群이나 광산의 坑穴, 광부숙박소, 촌락의 민가, 산간벽촌의 학교건물, 벌목장에 세운 草幕群 등을 수용시설로 이용하고 있었다.

유엔군이나 국군포로가 갑자기 수만명선으로 불어난 것은 50년 10월 이후 중공군이 침입한 후부터였고 중공군은 51년 1월부터는 한국군 포로를 제외한 유엔군 포로 거의 전부를 압록강변의 이른바 제5포로수용소(碧潼소재)에 집결시켜 집단 수용하여 그들이 직접 관리했다. 50년 7월 20일 대전 전투 때 실종되었다가 후일 북괴군에 포로된 미군 제24사단장 딘소장도 이곳으로 이송되어 휴전 성립 때까지 특실에 감금되어 있었다.

한편 國軍 포로는 그대로 북괴군 후방 총국에서 관리했으며 前記한 북한 각 지역의 수용소에 분리 수용했다가 불시로 이리저리

전전 이동시키면서 혹심한 강제노동을 시켰다. 그리고 북괴는 국군 포로들을 이른바 「解放戰士」라고 불렀고, 북괴군 편제와 꽉같이 분대, 소대, 중대, 대대로 勞務부대를 편성하여 대개의 경우 부분대장에서부터 분대장, 부소대장, 소대장, 문화(정치) 副中대장, 중대장, 문화副中대장, 대대장 등 지휘 감독자는 모두 북괴 내무성 경비대 또는 保衛省(현 인민武力部) 소속의 그들 정규화 사관과 군관(장교)으로 보직시켜 주야로 국군포로들에게 북괴의 군대규율과 정치사상 교육을 실시했다. 집중적인 세뇌공작이었다.

따라서 포로들은 옳죽달싹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뿐만 아니라 시한폭탄이나 불발탄 발굴제거작업을 하다가 한꺼번에 몇십명씩 폭사를 당하고 병신이 되어도 불평 한 마디 할 수 없었다. 부분대장, 분대장, 부소대장, 소대장, 중대장의 감시 감독의 매서운 눈초리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언제나 가까이서 번득이고 있었다.

만약 불평을 했다가 그들에게 적발되어 심한 비판을 받는 날에는 당장 「解放戰士」라는 그 어줍지 않은 칭호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반동분자」「조직을 파괴하려는 暗害분자」「간악한 美帝의 스파이」로 몰려, 공개 충살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버린다. 북괴가 그들 정규군 병사와 군관들을 끌간(지휘-감독자)으로 하여 편성한 국군 포로 노루부대는 무수히 많았다.

그 가운데 지금 필자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51년 2~3월, 필자가 편입되어 고초를 겪다가 탈주한 順安 비행장건설의 제213부대와 順安~평양간의 철도보수작업에 흑사되고 있던 제928부대, 평양 美林비행장 복구공사에 투입되어 하루 평균 수십명씩 희생자(유엔공군의 폭격과 땅에 박힌 시한폭탄, 불발탄 제거작업 중 폭발사고로 인해)를 낸 제517부대 등이며, 이밖에 6.25전 38선 경비

을 맡고 있던 국군 某사단 소속 일선 대대장으로 있다가 월북한 적색분자 表武源의 복귀군 제101연대(최고사령부직속), 姜太武의 제102연대(最高司 직속)도 대부분이 국군포로들로 편성되어 있었고 이들도 복귀군 前線후방 시설 방호와 복구공사에 동원되었다.

그리고 51년 3월, 평양에 이른바 解放戰士 제 1여단부라는 것이 설치되어 이곳에서 평양지역의 국군포로 노무부대들의 사상교양과 할당된 작업량의 초과 완수를 목표하는 선동공작을 관장시켰다. 이 여단의 표면상의 책임자(여단장)는 6.25때 서울서 변경, 월북한 宋虎聲이었다.

林彪軍에 사로잡혀

1950년 10월 중순, 국경선(鴨綠江)을 향해 북한의 중부지역(淸川江 이북의 산악지대) 깊숙이 북진중이던 국군 제 2군단 각부대(제 6사단, 제 7사단, 제 8사단)는 뜻하지 않은 中共軍 大部隊(林彪 쇠하의 제 4야전군, 제 3集團軍소속 제 38軍의 제 112사단, 제 113사단, 제 114사단과 제 42군의 제 125사단)의 기습 반격을 받고 전격에서 急轉直下로 淸川江 이남線까지 분산 후퇴의 不運을 맞게 되었다. 이 가운데 제 6사단 7연대 병력 일부는 鴨綠江까지 도달했다가 분산 후퇴했다.

그로부터 약 한달, 국군 제 2군단은 청천강선에서 재정비하는 한편으로 一大 반격 준비를 서둘렀다.

그런데 또 한번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50년 11월 25일 청천강 전선을 직접 시찰한 백아미 원수가 美제 9군단 전방지휘소에서 中-서부의 전 유엔군(美제 8군 제 9군단 국군제 2군단)에게 재반격(북진) 명령을 하달하고 『늦어도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전쟁을 끝내야겠다』고 말한 다음날인 11월 26일 妙香산맥과

狼林산맥 사이의 德川 寧遠 孟山 등지까지 다시 진출했던 국군 제 2군단의 각 사단이 前記한 중공군의 대대적인 제 2차 기습 포위공격을 받고 다시 분산 후퇴의 불운에 빠졌던 것이다. 林彪의 교묘한 大部隊유격작전(誘引작전=남군을 포위 공격하기 용이한 지점 즉 산악 험곡으로 끌어들임)에 국군이 말려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바람에 국군 제 2군단左측의 청천강 연안 軍遇里(安州) 일대의 美軍 제 2사단과 英聯邦旅團, 터키軍여단 등도 후방이 차단당하여 대타격(美軍 제 2사단의 경우, 장비 전부를 적의 손에 버렸음은 물론 4천여명의 인명 손실 <대부분이 중공군에 포로>)을 당해 미육군전사상 유례없는 참패)을 당했다.

德川지구에서의 국군의 손실도 대단했다. 순식간에 산간 험곡에서 2중 3중의 포위망 속에 빠져버린 전황이었기 때문에 중공군에게 포로가 많이 되었다. 6·25전쟁 전기간에 걸쳐 아마 이 德川 지구 전투에서 국군이 가장 많이 적군의 포로가 되었을 것이다. 필자도 50년 11월 25일 이 德川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포로가 된 치욕을 겪게 된 것이다.

중공군은 德川지구에서 불잡힌 수많은(약 2천여명으로 추산. 당시 중공군은 德川 寧遠 孟山지구에서 1만 5천명을 포로했다고 선전) 국군 포로 일부를 德川 북방 약 8km지점인 安東리 일대의 산기슭 마을들의 민가와 임시로 만든 거처대기 읍락들에 수용했다.

여러개의 소부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安東리의 민가는 포로들로 메워졌다. 방마다 콩나물 시루 같았고, 부엌과 외양간, 심지어 변소까지 그러했다. 마을앞 들판의 수십군데의 거처대기 막사 안도 마찬가지였다.

좀 뒤늦게 필자가 주용된 거처 대기 막사에는 이미 30여 명이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다. 그리고 그 반수 이상이 모두 환자였다. 등상으로 얼굴, 귀, 손발이 통통 부은 사람, 이름 모를 열병으로 코피를 흥정 쏟으며 앓아 누워있는 사람들로 막사 안 광경은 처절하기만 했다. 어디 지옥이 따로 있으랴 싶었다.

중공군은 포로들에게 하루 두끼의 옥수수 날알 삶은 것 한줌씩 밖에 급식하지 않았다. 아무런 부식물도 없었다. 이곳에서는 소금조차도 금싸라기처럼 귀한 것이었다.

워낙 포로의 수효가 많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중공군은 식량공급이 달려 그들도 옥수수, 전빵, 미싯가루 등으로 허덕거리고 있는 판국이니 포로 대우가 좋을 리 없었다.

安東里에서 4~5일이 지난 어느날 초저녁, 중공군은 포로들에게 행선지를 알 수 없는 북으로의 행진을 강요했다. 그 행진은 그야말로 고난과 죽음의 행진이었다.

12월 초순, 백설로 하얗게 덮인 북녘의 산천—영하 20도의 혹한—.

포로들은 눈이 풍풍 얼어붙어 빙판으로 반들거리는 산간 도로를 길 양옆으로 한줄씩 2열 중대로 늘어서 걸었다. 미끄러워서 마음대로 발을 빼놓을 수가 없었다. 여기저기서 마구 나동그라졌다.

그런데도 진북관의 중공군 경비병들은 『콰이콰이메(빨리빨리)』 소리를 연발하며 나동그라진 포로들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세우곤 했다.

그들은 꼭예사 재주라도 가졌는지 빙판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도 한번도 나동그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몇 심리를 걸어도 조금도 지친 기색이 안보였다.

하기야 지난날 광활한 대륙에서 28개의 큰 산맥과 36개의 강하

와 30개의 省을 넘나들며 하루 평균 25마일(약 1백리)의 도보행군과 전투(抗日-抗國民軍)로 단련된 녀석들이니 그럴 법도 했다. 그들에게는 韓國의 기후(추위)나 산악과 협한 도로는 아무것도 아닌 성실었다.

中共軍의 政治활동

1950년 12월 초순, 영하 20도, 혹한 속에 포로들의 북으로의 행진은 平南 德川에서 청천강 이북 지역으로 이어졌다.

필자가 끼인 포로 행진대열은 묘향산 기슭의 平北 영변과 球場新興洞을 거쳐 풍풍 얼어붙은 청천강 얼을 위를 건너 이틀 만에 照川 서북방의 泰平洞이라는 곳에 당도했다. 약 2백리의 험로였다.

행진은 야간(日沒 후부터 다음 날 새벽 3~4시까지)에만 한정되었다.

당시 포로들의 행렬은 10리 20리 그 이상의 길에 펼쳤으리라.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리고 행진 도중 밥하늘에는 유엔군 야간 폭격기들이 일새없이 으르릉대고 있었다.

그러나 적의 군수 물자를 전방으로 실어내가는 야간 열차들은 기관차의 화통(불빛)을 거적으로 가지고 필사적으로 滿浦線(국경 관차의 화통(불빛)을 거적으로 가지고 필사적으로 滿浦線(국경 滿浦鎮~平壤 사이) 철길을 남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좁다면 신작로(국도)에도 무수한 트럭이 헤드라이트를 끈 채 하늘의 비행기 동정을 살피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南行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馬車群, 손수레(리어카)群, 등짐(지게)부대 등 온갖 수단이 다 동원되어 전방의 보급지원에 혈안이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가지 국군포로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광경은 남에서 북으로 들어가는 열차는 모두 우리(유엔군과 국군)가 전선에서 遺棄한 장비들, 즉 戰車 야포 장갑차 짜그려진 트럭 등을

실고 가는 것이었다.

〈북쪽 어디로 실고 가는 것일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녀석들(중공군)은 단단히 한 밀천 잡았다니까!』 필자분 아니라 뜻있는 포로들은 우리가 전선에 버린 장비를 신고 북으로 들어가는 열차를 볼 때마다 한숨 쉬어 한마디씩 중얼거렸다.

비행기 폭격으로 교량이 파괴된 지점 일대에는 밀어닥친 중공군의 보급트럭과 마차와 도보부대들로 혼란에 빠져 복적였고 부근 촌락에서 급히 동원된 남녀노소 주민들이 어둠 속에서 복구공사에 피땀을 흘렸다.

유엔군 야간 폭격기들은 이런 혼란의 지점을 영락없이 또 찾아와서는 무수히 고성능의 조명탄을 밤하늘에 떠뜨려 부근 일대를 대낮처럼 휘황하게 밝혀 놓고 다시 불벼락을 내리치고는 했다.

우리 포로대원은 북으로 행진 도중 여러번 그런 지점을 통과했다. 그 바람에 역을 하게 회생될 수도 적지 않았다. 한편 그런 혼란을 끔타 도망쳐 버린 포로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탈주 포로들의 용기는 가상했지만 아군 전선까지의 생활가능성은 회박했다. 후일에 안 일이지만 12월 4일 평양을 다시 내놓은 전 유엔군은 일사천리로 남으로 후퇴 중에 있었으며 전선은 대체로 開城북방(38도선 부근의) 球城江 근처였다. 따라서 清川江 북방에서 예성강까지는 7백리나 되는 적중의 멀고 먼 힘도 였던 것이다. 중공군은 포로들에게 수시로 통역을 동원하여 그들의 정치선전을 늘어놨다. 내용인즉, 「중국 인민해방의용군(志願軍)은 조선(북괴)을 침략한 미군을 응징하여 조선을 구조하고 나아가서는 자기 나라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출전한 것이며 절대 다수의 한국군 병사들은 자기들의 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었다. 요컨대 「抗米援助保家爲國」의 8字로 된 韓國戰介入의 정치선전 해설이었다. 그리고 毛澤東이 제정하여 중국 공산당과 군이 절대 신조로 삼고 있다는 이른바 「三大規律·八大注意」라는 걸 설명했다. 중공군은 절대로 적군의 포로를 학대해서는 안되어 잘 교화하고 혁명정신을 일깨워 이를 我方의 戰力化해야 하고 당과 군대는 어디까지나 인민의 편에 서서 인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쟁(또는 투쟁)의 상태는 적국의 국민이 아니라 통치자와 지배계층으로 보고, 전쟁에 있어서 적 국민까지도 선동하고 무장화하여 자기측 무장력으로 편성하며, 적국의 군대까지도 책동하여 자기측 무장력으로 활용하는 공산주의자들(특히 중공당)의 전통적인 혁명전술의 한 수단이었다.

그 수법은 약간 다르지만, 소련도 2차대전때 포로한 수십만의 독일군과 일본군(주로 관동군) 장병을 종전 후 송환하지 않고 억류하여 自國의 戰災복구 공사와 시베리아 개발공사에 흑사했던 것이다. 그리고 전시(2차대전 말기)에 상당수의 포로를 세뇌하여 그들을 전투부대에 편입하거나 對敵 심리전 요원으로 또는 간첩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련은 그런 부류의 포로병 출신들을 중공군에 넘겨줘 한국 전선에 투입시키기도 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事例 가 일본태생 한국인으로서 일본군 제223부대(서울龍山주둔)에 징집되어 2차대전 말기인 1944년 봄, 關東軍으로 전속, 滿洲, 牧丹江에 배치되었다가 소련군에 포로된 河清씨의 경우이다.

河清씨는 소련 각지에 끌려다니며 포로생활 과정에서 사상교화를 받고 소련군에 편입, 소련 극동군 군관교육대를 수료하여 소련군 대위로 진급했으며, 한국전쟁때 중공군 정찰연대에 파견되

었다가 1953년 5월 임진강 전선에서 유엔군측에 귀순했던 것이다.

北僕軍에 인도

일을 후 泰平洞을 출발한 우리 포로대원은 그날 밤도 약 1백리 북으로의 강제 행진 끝에 이튿날 아침 5시경 평북 溫井里라는 곳에 당도하여 중공군으로부터 북괴측에 전부 인도되었다. 50년 12월 15일이었다.

그곳 溫井里에는 滿浦鎮에서 新編되어 나왔다는 北僕內務省 소속의 약 1개 대대의 병력이 포로 인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다.

추위와 굶주림과 행진으로 기진맥진이 된 포로들에게 內務省 경비대 中佐 계복의 政治副 대대장이라는 녀석이 이른바 환영 연설을 했다.

『미제침략자와 리승만 파쇼도당으로부터 해방된 동무들(국군포로)을 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공화국(북괴) 군사위원회에서는 동무들에게 영예로운 解放戰士 칭호를 주기로 결정했음을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 같은 동포 형제간이기 때문에 동무들을 포로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 그럴 듯하게 동포애와 민족을 내세운 心理戰의 言語戰術이었다. 知覺이 없거나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 담박 넘어가기 안성마춤의 술책이었다.

그 증거는 금방 드러났다. 그들은 포로들을 인수하여 임시 지휘의 편의상 30명을 1개소대 단위로 중대-대대-연대로 편성했다. 이런 편성 도중 녀석들은 조금전의 그들 정치부 대대장녀석의 연설(정치선전)과는 판이하게 포로들을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대했다.

『이 반동 새끼들!』

『종간나 새끼들!』

『양코배기의 개들!』

『당장 쏴 광가데 버린다!』

북괴 경비대 녀석들은 이런 육지거리가 아니면 포로들에게 할 말이 없는 성실었다. 편성 도중 그들 마음에 썩 들게끔 움직여 주지 않는다고 입에 담지 못할 사나운 北道사투리의 온갖 욕설과 함께 총대로 마구 때리고 발질로 걸어찼다. 그들은 洛東江에서 풍지마지게 쫓겼던 분풀이라도 하는 성실었다.

이윽고 포로들은 2개 연대로 임시 편성되었다. 연대의 호칭은 해방전사 제15연대와 제16연대라고 했다.

溫井里에서 하루 종일 포로 대열 편성을 한 북괴 경비대는 해가 떨어지자 다시 포로들을 북으로 몰아세웠다. 자꾸 북으로만 가는 이 고달픈 행진은 도대체 어디서 끝날 것인가? 북괴 경비대 녀석들은 덮어놓고 『좋은 곳으로 간다!』고만 했다.

그들의 그런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건 아니었지만, 대체 그 좋은 곳이라는 데가 어디인지 한없이 궁금하고 답답했다.

『중국 본토로 배리고 간다더라!』

『아니야, 시베리아로 가는지 몰라!』

『만주땅 간도로 간다는 말이 있던데…』

이런 맹랑한 소문만이 포로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릴 뿐,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몰랐다.

후일에 안 일이지만, 50년 10월 초순 평양을 도망친 金日成과 북괴정권은 당시 (50년 12월 현재) 韓-滿국경小邑인 滿浦鎮에 자리잡고 있었고 필자가 前回에서 언급한 포로관리를 맡고 있던 북괴의 後方總局(통칭 後方사령부)도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滿洲방 潘陽(奉天)에 있던 이른바 「中-朝軍 連合司令部(사령관 彭德懷, 부사령관 金日成)」의 명령에 따라, 전쟁초기에 불잡힌 포로는 물론 중공군 개입 후에 대량으로 불잡힌 전 유엔군 포로들을 일단 압록강 주변으로 집결시켜 性分 심사와 기본적인 세뇌공작을 실시하는 과정에 이른바 반동성이 농후한 자(주로 국군장교, 현병, 情報隊員 등), 위장포로(유엔군의 韓人첩보 요원), 중노동에 견딜 수 없는 환자 등을 가려낸 다음, 나머지 포로들을 그들의 戰力化(前-後方의) 하려는 계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계속 북으로 행진을 강요당하고 있던 포로들은 그런 내막을 알 턱이 없었다. 溫井里를 지나면서부터는 국군의 제6사단소속이었던 차량과 장비들이 길가 언덕 밑에 무수히 굴려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푸른 6角별(星) 표지를 단 제6사단 장병들의 시체가 나동그라져 있는 것이 눈에 띠었다.

또한 군복상의에 「인디언 헤드 마크(미군 제2사단표지)」가 붙은 미군 장병들의 시체도 3~4구씩 무더기로 길가에 나동그라져 있는 처참한 광경도 눈에 띠었다.

국군 제6사단소속 부대가 열마전(그러니까 50년 10월 중순) 이 일대에서 중공군의 기습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짐작되었다.

그리고 清川江선에서 포로된 美 제2사단 장병들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 이 칠로 해서 북으로 굴려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길가의 미군시체들은 부상포로들로서 북파호송병들이 사실해버린 것으로 짐작되었다.

죽음의 宿宿

1950년 12월 중순, 북으로 북으로 장사진을 친 국군 포로대열은 관대리라는 산골마을에 이르러 하루 낮을 머문 다음 해질녘에

다섯밤째의 酷寒속의 飢餓-공포의 강행진이 계속되었다.

포로들은 문자 그대로 기진맥진이었다. 눈이 쌓여 풍꽁 얼어붙은 질바닥에 마구 쓰러졌다. 북파군이 총탄을 쏘아대지 않아도 수없이 저질로 죽어간 것이다.

韓-滿국경이 눈앞에 다가온 모양이었다. 추위는 보다 혹독해지고 地勢는 더욱 높고 험해졌다. 멀리 동북쪽으로 狹蹠嶺산맥의 白岩山, 狗峴嶺(개고개), 角大峰, 飛山峰 등 해발 2천m를 육박하는 눈쌓인 높은 산봉우리들이 바라보였다.

높고 큰 고개를 수없이 넘고 몇 살리를 가도 人家는 구경하기 조차 힘들었다. 좌우사방이 모두 高山峻嶺의 파도며 백설이 뒤덮인 원시림이었다.

우리 나라에도 이런 험준한 고산지대가 있었던가 실고, 얘기로만 듣면 히말라야 산중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우리 포로대열은 그때 백두산의 장백산맥에서 파생되어 강남산맥과 더불어 압록강과 길게 평행선을 이루며 서쪽으로 벌어나간 狹蹠嶺 산맥의 한 가운데를 가르고 북으로 넘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兩江 松平 등지의 산간 의출기 국도변의 촌락을 거쳐 古場이라는 촌락에 이르렀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길 벼랑 아래에 굴려 있는 수십대의 트럭과 지프, 대전차포 등이 곳곳에 눈에 띠었다. 모두 국군 제6사단 7연대의 표지가 붙어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압록강에 제일 먼저 돌입했던 6사단 7연대가 50년 10월 중순 이 지역에서 중공군의 기습 포위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포로들의 죽음의 행진은 德川 安東里를 떠난 7일만에 압록강변의 楚山 땅 和靈광산에 이르러 일단 끝났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필자가 속해 있던 1개 연대만이 이곳에 머물게 되었고 나머지 1개연대는 서북쪽으로 행진을 더 계속하여 碧灘으로 갔던 것이다.

필자가 속한 포로연대 즉 「解放戰士 제15연대」가 머물게 된 和豐광산은 제법 규모가 큰 아인을 제취했던 광산이었으며, 북괴군은 포로들을 텅 비어있는 수십채의 광부 숙사(허름한 판자집형 가전물)에 수용했다. 코딱지만한 방한칸에 20~30명씩 수용되었다.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 같았다. 누울 자리는커녕 밭도 벌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방안에서 밤하늘의 새파랗게 얼어붙은 벌이 바라보일 지경으로 전물이 영성하고 날아서 방안기온이나 바깥기온이나 거의 마찬가지였다. 당시 그곳 기온은 평균 영하 25도였다. 몸서리쳐지는 추위와 배고픔, 영양실조, 그리고 열병(발진티푸스)의 대거 엄습, 유행, 창궐… 이곳이 바로 지옥이 아닌가 싶었고 아무리 강인한 생명이라도 배겨날 도리가 없을 것 같아 절망만이 머리에 가득찼다.

수많은 포로가 발진티푸스에 걸려 고열로 의식을 잃고 코피를 쏟으며 덩굴다가 죽어갔다. 그렇게 죽어나가면 그 수만큼 새로운 환자가 드러눕는다.

◆ 그러나 북괴 수용소 책임자들은 전염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별로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미제국주의 비행기들의 무차별 폭격으로 모든 약품 생산공장과 병원시설들이 불타버려서 환자들을 만족하게 치료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리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그리고 『미군이 폐전을 만회하기 위해 생물학戦(세균전)까지 감행하고 있으며 비행기에서 투하한 세균탄으로 해서 북녘 땅 전지역에 이런 열병이 번지고 있다…』는 모략 선전을 높여놓기 일쑤였다.

북괴가 임시포로수용소로 이용하고 있는 이 광산에는 그 무렵 (50년 12월 중순~하순) 국군포로뿐만 아니라 약 1천명쯤 되는 미군과 터키군 포로도 국군 포로와 똑같은 상태로 수용되어 있었다. 뼈와 가죽과 털(體毛)만이 양상한, 허위대 큰 그들의 물결은 더욱 처참해 보였다. 그러나 국군포로의 경우와는 달리 그들은 부대표자와 명찰, 그리고 계급장을 모두 단정히 달고 있었다.

미군 포로의 대부분은 「인디언 헤드 마크」의 제2보병사단 장병이었다.

그런데 한 수용소 안에서도 국군포로는 북괴군이 말고, 외국인 (유엔군) 포로는 중공군이 말고 있었다. 얼마 후 (51년 1월 초순) 이 미군과 터키군 포로들은 중공군의 직접 관리하에 있던 碧灘제 5포로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지긋지긋한 審查

1950년 12월 하순, 和豐광산에 수용된 국군 포로들에 관한 이른바 「審查사업」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

심사 담당자는 북괴군 최고 사령부 총정치국 요원, 후방 총국의 조직계획국 요원, 내무성 정치보위국 요원, 보위성 소속 경무관(현 병장교)들로 편성되었다.

심사는 포로 한 사람이 평균 세번은 겪었다. 그런데 이 심사는 최초의 수용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생활 전기간에 걸쳐 수시로 실시(개별 또는 집단으로) 되었다.

심사 내용은 국군의 소속 성명 계급 본적 주소 학력 그리고 가정환경(출신성분), 그밖에 국군에서 각종 군사교육을 받은 정도와 주요 전투참가 횟수 등을 교치교치 따져물고 6·25전쟁에 대한 소견을 말하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거의 동일한 내용의 신문

을 몇 번씩 반복했다.

반복되는 이런 심사과정에서 국군의 임대 동기나 학력 계급 등을 속이는 듯한 흥미 잡히면 이른바 「특별심사」에 회부되어 반죽 음이 되도록 얹어 맞는다.

천행으로 필자는 번번이 허위진술이 통과되어 정체가 탄로나지 않았다. 만약 그때 잘못되었더라면 오늘이 있지 못했으리라.

약 20일간 주야로 계속된 심사에서 정체를 감추고(2등병, 1등병으로 위장하고) 있던 2백여명의 장교와 현병 정보대원 고급하사관 등이 색출되어 적리수용되었다.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수용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지난날 동무들 쏠다뜨를 못살게 굴면 국방군 장교와 악질적인 반동파 「특무(스파이)」들을 가려내어 따로 수용했다…』고 하는 북괴경비병들의 말로 미루어 그렇게 짐작이 잘 뿐이었다. 쏠다뜨란 露語인데 「卒兵」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북괴의 포로심사단은 그들이 색출해 내려는 대상 전부를 20일동안에 전부 가려내지는 못했다. 적지 않은 수의 장교들이 끝까지 낙동강 전선에 임대한 2등병이라고 신분을 속이고 버티었다.

한편, 당시 碧灘 제5포로수용소의 유엔군 포로들의 실태는 어떠했던가. 「THIS KIND OF WAR. by T.R. Fehrenbach. 1963」에서 예거해 보기로 한다.

미군포로의 대부분이 중공의 반동제급처럼 취급되었다. 그러나 일부포로들의 신변에 폭력을 휘두르는 압력이 가해진 것은 아니다. 굶주린다는 것,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주입식 공산주의 사상교양이 전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이것이 바로 중공의 이른바 포로에 대한 관대정책의 일면이었다.

특히 미국空軍은 북한 전지역을 폐허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공군출신포로들은 중공군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분노를 아울러 사서 처음부터 최수 취급을 받았다.

또 중공군의 큰 무리가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등의 병균을 안고 암록강을 건너와서 북한주민들에게 전염시키게 되자 미국공군포로들은 이른바 세균전쟁의 죄목까지 뛰집어썼다. 중공군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선전자료를 얻었다.

미공군 포로와 그밖의 고급장교 포로들은 중공측이 열거한 欺犯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는 심한 고통을 받았다. 이들은 대체로 추워서 견딜 수 없는 득방에 감금되었고 미칠색 급식(육수수, 콩삶은 것)을 중단하는 고문을 받기도 했다.

그밖의 다른 포로들도 모두 굶주렸고, 소리를 지르고 실도록 지루한 신문(심사)을 받았다. 그들이 받은 처우는 거의 30년 동안 공산주의 사회(특히 소련)의 정치범들이 받은 것이나 거의 다름없었다.

중공의 이른바 포로에 대한 관대정책에서도 자유 우방이 보낸 구호물품이 포로수용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중립국의 시찰인이 포로수용소에 접근하는 것조차 전혀 허락되지 않았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네 병사들이나 인민들도 밟지 못하는 해택을 미국인에게 베풀어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1951년 1월 중순, 楚山-和豐광산에 임시 수용되었다가 碧灘제5포로수용소로 이송되어온 미군과 터키군 포로들에게 중공군 上佐급 정치위원 奪는 중공의 관대정책에 대한 설명을 한참 늘어놓은 뒤 추위에 떨며 겁을 먹고 있는 포로들에게 한마디 말을 더했다.

『이 포로수용소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장교도 사병도 없다. 누구나 다 똑같다. 모두가 동무다!』

포로수용소에서 장교, 하사관, 사병을 별도 수용하고, 처우에 있어서도 상급자 우선으로 약간의 차등을 두는 것은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의 관례(세계적인)로 통했다. 그것은 제네바협정 준수 이전의 군대의 도덕적인 문제였다.

그런데 포로수용소에서 군인의 계급차를 무시한다는 것은 포로 집단의 단결이나 반항을 효과적으로 파괴하자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계급이 없단 말야. 너희는 다 동등해!』 정치위원吳는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했다.

北僑軍에 강제 入隊

1951년 2월 초순, 楚山 和豐광산수용소의 국군포로들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물론 이번에도 행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동안 심사를 통해 쳐발된 장교와 고급하사관, 헌병, 정보대원 등 이른바 「반동성」이 농후한 사람들과 환자들은 이 이동대열에 끼이지 못하고 그대로 죽음이 들킬거리는 수용소에 잔류당했다.

필자의 기억으로, 당시 광산 수용소에 그대로 억류당했던 국군 고급장교는 제 8사단 10연대장 高根弘 대령, 제 7사단 5연대장 朴昇日 대령, 제 8사단 21연대장 金永魯 대령, 그밖에 제 8사단 소속 朴明烈 소령, 朴××중령(이름未詳), 제 6사단 의무참모 金××중령(이름 未詳) 등이었다.

이윽고 평북 회천 북방 일대의 산기슭 마을들의 민가에 분대-소대별로 분산 수용된 이 우스꽝스런 교학서니의 포로들은 이른바 북괴군 일대선서인 「군인선서」를 강요당한데 이어 본격적으로 북괴의 군대교육(政治上學-규율-체식교련-군가 등)을 받게 되었

다.

이것은 세기적인 회비극이 아닐 수 없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정권집단에서 적군 포로들에게 自軍에의 임대선서를 강요하고 자기들의 군대교육을 실시했던가.

포로들에게 실시한 「정치상학」의 교재는 주로 金日成의 「1951년의 新年辭」였다.

국군포로들은 여기서 난생 처음으로 무슨 「보고대회」니, 「학습토론회」 「讀報회」 「자아비판회」 「호상비판회」, 「군무자대회」니 하는 따위를 보고 배우고 체험했다.

포로를 장차 어디다가 어떻게 부리려고 이런 식의 훈련을 시키는 것일까. 혹시 전쟁터(일선)에 총알받이로 쓸어박을 작정은 아닌지? 궁금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다른 훈련은 다 시켜도 그들의 무기에 관한 것과 전투교련만은 빼놓는 걸 보면 전투부대로 동원할 것 같지는 않았다.

또 만약 앞으로 전투훈련을 시켜 전선에 배치한다면 하나도 그들 편에 남아 있을 포로는 없을 것 같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북괴군은 1951년 1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된 52년 여름까지 약 3천여명의 국군포로를 그들 전투부대에 편입, 전방에 배치한 바 있었다. 그러나 거의 전부가 남으로 도망치거나 유엔군에 투항해 버렸다.

이 때문에 북괴군 아닌 이 북괴군을 가운데 상당수가 기구하게 도 2중 포로신세를 면치 못하고 巨濟島 공산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것이다.

북괴가 지난날 국군포로들의 피땀을 짜고, 수많은 목숨을 희생시켜 건설한 順安비행장은 지금 북한의 유일한 (가장 규모가 큰) 국제공항이 되어 있다.

國民防衛軍사건

洪思重

문학평론가

당시 國民防衛군 제8教育隊 경리과장·中尉

이밖에 黃州비행장 南浦비행장 등도 국군 포로들을 동원하여 새로 세운 것이며, 완전 파괴된 평양 美林비행장 역시 국군포로가 복구한 것이다.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第惡性은 이런 데서도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1951년 3월 중순, 필자는 결사적으로 順安비행장 노역장을 단독 탈주, 평양 黃州 沙里院을 거쳐, 황해도 南川에 이르러 당시 이곳에 주둔했던 북괴군 최고사령부 총정치국 직속 제535부대(서울 지역의 軍政부대)에 잡임, 약 한달 동안 은밀히 첩보공작을 펼쳤다가 발각돼 총살 처형, 다시 탈주하여 琴城開城 등지를 거쳐 임진강을 도하, 5월 25일 당시 피아의 전선이던 서울 북방 碧蹄에 서 아군으로 생환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휴전이 성립되면서 북괴가 송환한 국군포로는 8천 3백 21명,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 포로 5천 1백 23명 등 모두 1만 3천 4백 44명에 그쳤다.

미송환된 국군포로는 적어도 6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사망자(病死凍死餓死被殺)도 다수 포함되었겠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그대로 북한에 억류되어 이른바 「戰後북구 사업」에 투입되어 계속 노예노동을 강요당했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한 포로들이 있다면 이제 그들의 평균 연령은 50대 중반인 것이다. 오늘도 그들은 기구 한 운명을 한탄하고 망향의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이다. 언제쯤이 나 그 북녘땅에 자유와 해방의 광명이 깃들이에게 절는지? 안타까운 심회를 금할 질 없다.



金浦航空위군사령관을 포함한 5명의 부경 사건 관련자 총살형 현장. 국민여론에 의해 그들은 끝내 사형되고 악몽의 낭위군도 해산으로 막을 내렸다.